

기능인 최고수 '제과 명장' 무엇인가

20년 이상 해당분야 종사자 중에서 매년 선발

대한민국 제과 명장이 탄생했다. 지난 10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찬희씨가 '2000년 대한민국 명장' 34명에 선정되었음을 발표함으로써 제과업계에도 명장 1호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제과명장 선정은 올해 처음 제과(서비스 분야)가 명장(名匠) 선정 직종으로 채택되면서 이루어진 쾌거로 앞으로 제과업계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능인 최고의 영예인 '제과 명장'은 무엇인가.

명장 제도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를 선정해 기능인 최고 영예인 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1986년부터 매년 기계, 금속, 조선, 토목, 건축, 공예, 서비스 등 24개 분야, 167개 직종에서 35명 이내를 명장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휘장(名匠徽章)과 증서, 일시 장려금 1,000만원, 매년 50만~150만원의 기능 장려금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면제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른다.

명장 후보자 신청절차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공고되는데 명장 후보 대상

자는 산업현장의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거나 직접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되 보유기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공적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소속단체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표 1 참조>.

각 시·도지사로부터 추천된 명장 후보자가 접수되면 기능 장려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장려공적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면접, 체점 등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장을 선정하게 된다.

제과 명장의 선정은 앞으로 제과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은 물론 제과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제과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과업계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강인옥/ inok@mbakery.co.kr>

< 표 1 명장에 관한 제반 사항 >

■ 포상 내용 및 우대 사항

- ① 명장증서와 휘장 수여
- ② 일시장려금 1,000만원 지급
- ③ 연금 형식의 기능장려금(50만~150만원)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의 일부면제
- ⑤ 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 위촉 등

■ 신청절차

노동부장관 선정 조건 공고 → 시장·도지사 노동부장관에게 추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심사 의뢰 → 노동부장관 발표

■ 추천 자격 필수요건

- ① 산업현장의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접수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
- ② 명장 직종 및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접수개시일 현재 50세 이상인 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아니어도 무방)
- ③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 ④ 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준비서류

- 명장 추천서(시장·도지사용) 구비서류 :
- ① 공적 조서 및 공적 요약서 각 1부
 - ② 경력 증명서 1부
 - ③ 보유기능에 대한 설명서(입증자료 포함) 1부
- 기타 서류 :
- ① 소속사업체 기능인 직위(직급)제도 현황
 - ②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
 - ③ 품질 향상 및 공정 개선 실적
 - ④ 프로필 작성조서
 - ⑤ 모범사례 등